

첫 한글 『성경전서』(1911년) 좌담회

민영진*

좌담회 참석자

사회¹⁾

민영진, 감리교 신학대학교 구약학 교수, 대한성서공회 총무를 역임한 후 현재 대한성서공회, 세계성서공회 연합회 번역자문위원으로 캄보디아 등 성경 번역 컨설팅에 힘쓰고 있다.

「Canon&Culture」 4:1에 “창세기(1906/1911)-서지 사항, 편집 특징, 번역 특징, 주석 선택을 중심으로”를 썼다.

토론

김정우, 총신대학교 구약학 교수, 한국신학정보연구원 원장으로 「Canon&Culture」, 「헤르메네이아 투데이」를 발행하고 있으

* 대한성서공회, 세계성경성서공회 연합회 번역자문위원, 구약학

1) 「Canon&Culture」 4:1 (2010)과 4:2 (2010)는 “성서와 한글의 만남-첫 한글 『성경전서』(1911년)”를 주제로 발간했다. 위의 글은 4:1와 4:2에 이 주제로 글을 쓴 필진들이 모여 2010년 8월 28일(토), 오후 1시 30분-4시 30분 라리에서 연 좌담회를 총신대학교 박형대 교수가 정리한 것이다(참석자: 김정우, 김창락, 민영진, 박형대, 소기천, 이달, 이덕주).

며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학자를 발굴하는 데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김창락, 한신대학교 은퇴 교수, 「Canon&Culture」 4:1에 “『성경전서』의 번역 검토-『마태복음서』 번역의 장점과 계승 방안을 중심으로”, 「Canon&Culture」 4:2에 “『성경전서』(1911년)의 번역 검토 제2부-『마태복음서』 번역의 과오와 계승 방안을 중심으로”를 썼다. 『표준』 번역 작업에 참여했다.

박형대, 총신대학교 신약학 교수, 「Canon&Culture」 편집위원이며 좌담회 원고를 정리했다.

소기천,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약학 교수이며 「Canon&Culture」 4:1에 “1911년 『성경전서』의 한국 문화사적 가치에 관한 연구”를 썼다.

이달, 한남대학교 기독교학과 교수이며 『표준』 작업에 참여했고 『개역』을 개정할 때 『개역』의 문체를 현재화하는 작업을 했다. 「Canon&Culture」 4:2에 “『성경전서』(1911년)의 요한계시록 번역 특징에 대한 고찰”을 썼다.

이덕주, 감리교신학대학교 역사학 교수, 교회사를 전공했지만 성경 번역도 하고 있으며 우리말 번역 성경의 방대한 자료를 갖고 있다. 「Canon&Culture」 4:1에 “‘제1세대 성서’를 통해 이루어진 복음의 토착화-한글 성서 최초 완역 100주년의 역사 신학적 의미”를 썼다.

『성경전서』(1911년)의 출판 의의

민영진: 오늘은 1911년 판 『성경전서』(편의상 『구역』이라고 부르겠습니다.)의 출판 의의를 주로 다루겠습니다. 이덕주 교수님은 성경 번역 역사 개관을, 소기천, 이덕주 교수님은 『구역』의 문화사적 의미를, 이달

김창락 교수님은 『구역』의 문체 특징을, 김창락 교수님과 저는 『구역』의 번역 특징을 말하겠습니다.

『성경전서』(1911년)의 역사적 배경

민영진: 역사적인 배경을 이덕주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이덕주: 『성경전서』(1911년)는 1910년에 번역이 완료되고, 1911년에 출판되었습니다. 교회를 공부하다보면 100주년 같은 중요한 때 기억해야 할 신학적 의미가 뭘까 고민하게 됩니다. 단지 10년, 100년 주기보다 그 사건의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100년 전에 이루어진 성서 번역을 이 시점에서 왜 기념해야 하는가?’ 이것이 제 논문의 시발점이었습니다.

1911년은 우리 민족사에서 매우 불행한 때였습니다. 말 그대로 합병이 이뤄져 합법적으로 우리 민족의 전통, 문화, 얼, 정체성이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성경이 완성되었습니다. 올해로 합병 100주년, 6·25 60주년인데, 1911년에 교회사에서 성경 완역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105인 사건’입니다. 아시다시피, 의식 있는 민족주의 기독교인들이 일제 침략과 지배라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지킬 것인가 고민하면서 1907년에 신민회라는 비밀 결사를 조직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 윤치호 선생, 전덕기 목사 등 의식 있는 기독교인들이 총동원되었습니다. 그 조직이 은밀히 활동하다가 1911년에 철퇴를 맞았습니다. 일제는 눈에 거슬리는 정치, 사회, 민족주의 조직을 모두 정리했지만, 종교적인 배경 아래 움직이는 신민회는 늦게 발견한 것이죠. 이때 연루된 사람의 80%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 점에서 ‘105인 사건’은 기독교가 민족 수난에 동참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11년 ‘105인 사건’이 있을 때, 성서가 우리말로 완전히 번역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전이 번역된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역사적, 문화적 전통성이 말살되던 시대에 우리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실 해방 직전까지 우리말을 지킨 곳은 교회였습니다. 강대상에서 한글 성경을 사용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1911년에 만들어진 한글 성경이 일제시대를 버텨낼 수 있었던 힘이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달: 그때는 변화가 모색되던 시대였습니다. 유교가 지배하던 조선 사회가 일제의 강점과 다른 이유들로 붕괴되고 새로운 지도력과 문화가 필요한 시기이기도 했어요. 이 시기, 1906년에 『혈의 누』라는 신소설이 등장해서 새로운 형식으로 표현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성경이 번역되어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고 평양 대부흥 운동도 일어나 기독교인이 주도적으로 이끄는 사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911년 번역에 이러한 시대적 필요가 반영되었을 것입니다.

민영진: 역사적 사실을 새롭게 상기하게 됩니다. 105인 사건이 1911년에 있었던 것도 그렇지만, 『혈의 누』가 1906년에 나왔다는 것도 특별합니다. ‘1911년 판’에 사용된 『창세기』가 1906년에 먼저 나오고 한자도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 ‘1911년 판’에 들어갔어요. 당시 현대어로 번역된 창세기가 『혈의 누』와 같은 해에 나왔어요.

이덕주: 이인직 선생이 『혈의 누』를 쓸 때 원각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특수 계층만 누리던 공연 문화를 일반 시민들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기존 동양 경전이 한문으로 쓰여 극소수 식자층만 읽을 수 있었던 것과 달리, 기독교 경전이 누구나 읽을 수 있는 한글로 번역되어 소수 계층의 종교 문화 영역이 민중 계층으로 확대되었어요.

이광수, 최남선 선생도 성경을 읽고 감동을 받아 신문화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시편』도 1906년에 나왔어요.

민영진: 『혈의 누』에 나타난 조선말과 ‘1911년 판’ 『창세기』에 나타난 조선말의 비교 연구도 해볼 만하겠습니다.

이달: 모든 사람들이 접근 가능하고 모두가 함께 읽을 수 있는 성경이 나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구역』의 번역 원칙은 당시 조선의 관용적 표현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원어의 의미를 설명하면 조사들은 한국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오히려 『개역』은 원문에 더 충실하려다보니 우리말 어법에 맞지 않고 어색한 표현이 많아져 읽기에 더 불편해진 면이 있습니다. 『개역』 개정 작업 때 우리말상 어색한 곳을 수정하면서, ‘구역이 그대로 있었다면 손댈 곳이 적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성경전서』(1911년)의 문체

민영진: 『구역』과 『개역』의 문체 차이보다 오늘은 『구역』의 문체 특성에 집중했으면 합니다. 『구역』이 『개역』보다는 더 우리말다운 문체였다’라는 말씀을 이미 하셨으나 『구역』의 문체에 대해 이달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덕주: 먼저, 용어 부분부터 정의했으면 합니다. 『구역』이란 말은 1911년대에는 쓰지 않았고, 1936년, 1937년에 『개역』이 나오면서 사용되던 말입니다. 『구역』이란 말에는 낡은, 그래서 뭔가 좀 떨어진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러나 국어학을 하신 모든 분들은 ‘1911년 판’의 문체가 참으로 아름답고 우리말 정신이 배어 있다고 평가합니다. 사실 『개

역』은 우리말이 가장 꺾박받던, 조선어 연구자도 없었고 조선어가 파괴되던 시대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임부터는 『구역』보다 ‘1911년도 판’이라든지 제가 표현한 ‘1세대 성경’이라고 하든지 했으면 합니다. 『구역』과 『개역』으로 갈라놓지 않았으면 합니다.

김정우: 저널을 출판할 때 ‘『성경전서』(1911년)’이란 원래 명칭을 사용했고, 글을 쓸 때는 편의상 『구역』이란 표현을 용인했습니다. 오늘 좌담회에서는 ‘1911년 판’으로 부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달: 제가 1911년 『성경전서』 관련 요한계시록 글을 쓸 때 문체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고, 문체보다 ‘요한계시록의 번역 특징’을 주로 다뤘어요. 그래도 ‘1911년 판’의 문체를 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 방식으로 읽기 편하게, 자연스럽게, 흐름을 따라 번역되었어요. 긴 문장으로 설명하면서 연결했어요. 『개역』에는 관형절이나 관계절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반면, 『구역』은 말하는 방식으로 번역되어, 읽으면 쉽게 의미를 따라갈 수 있고 흐름이 자연스럽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민영진: 그런 것 같습니다. 박창해 교수님은 우리가 모르는 우리 문체와 문장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1911년 판’ 문체와 1938년 이후의 개역 문체의 차이를 잘 모르는데, 그분은 아셨습니다. 1900년대 문체와 1930년대 이후의 문체를 분명히 구별하셨어요. 그분은 두 문체가 섞여 있으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개역』에는 두 문체가 뒤섞여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한 요즘 세대는 ‘1911년 판’과 ‘1938년 판’의 문체 차이를 거의 모릅니다. 대구 계명대의 정중호 교수님의 아버님이 은행가셨는데, 『표준』과 『개역개정』 작업이 이뤄지던 1980년대 후반에 성서공회에 찾아오셔서, “개역은 안 됩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수려한 우리말 문체가 『개역』에 와서 지리멸렬해졌으니 이것 좀 바로

잡아 주시오. 이 아름다운 문장을 왜 망가뜨려놨습니까?”라고 간곡히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개역』도 낡았다” 하던 때라 이분의 요청을 감당할 수 없어서 고쳐야 할 목록을 부탁했더니, 양면 페이지에 만년필로 줄을 그어 ‘1911년 판’과 ‘1938년 판’ 둘의 문체를 비교하셔서 50-60쪽이나 만들어서 번역실로 가져오셨습니다.

김정우: 김창락 교수님이 만년체, 낭독체, 판소리체로 잘 정리하셨습니다.

김창락: ‘1911년 판’은 막힘이 없이 흘러가는데, 『개역』은 잘라 놓았습니다. 원문에 가깝게 하느라고 그랬죠. ‘1911년 판’을 만들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말을 다듬는 일에만 가담했습니다. 서양 선교사들이 일차적으로 전하는 의미와 한문 성경에 담긴 의미를 우리말다운 문체로 표현해내려고 노력했지요. 그러나 『개역』을 번역 할 때는 신학과 서구어를 공부한 우리나라 학자들이 직접 번역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원문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 때문에 원문의 언어적 구조에 얽매어 다보니 우리말의 고유한 흐름이 망가질 수밖에 없었지요. 하나를 얻는 대가로 ‘1911년 판’ 문체의 아름다운 요소를 많이 잃어버린 셈이라 하겠습니다.

이달: 번역이 ‘반역(反譯)’이 될 수 있기에, ‘1911년 판’과 ‘새 번역’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많습니다. 번역할 때는 원문을 잘 표현하기도, 수용 언어로 잘 이해되기도 해야 하기 때문에 원문 뜻은 살려야 하지만 우리말답게 번역해야 합니다. 말하고 읽는 방식을 따르지 않은 어색한 표현들은 새로운 번역이 나올 때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점에서 ‘1911년 판’의 가치가 돋보입니다.

김정우: 원문은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장은 의미 전달의 최소

단위가 되고, 문장이 끊어져야 문장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끝나지 않는 만연체로 번역할 경우 의미가 모호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연체가 옛 시대에는 어울렸겠지만 현대식 문장 교육을 받은 오늘날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고 길게 이어지는 문장의 논리를 따라갈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김창락: 화려체, 만연체의 장점도 있지만, 요즘은 간결체를 선호합니다. 간결한 것의 장점이 있고, 길게 늘인 것의 장점이 있습니다. ‘1911년 판’의 문체를 지금도 그대로 답습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1911년 판’에 담겨 있는 우리말 고유의 문체적 특색을 많이 되살려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간단한 예를 들면, 서구어적 표현인 “Come and see.”라는 중문(a compound sentence)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경우에 “와서 보아라”라고 해야지 “오라. 그리고 보라.” 또는 “오너라, 그리고 보아라.”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말의 이러한 고유한 특색을 좀 더 긴 단위에도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김정우: 지금은 트위터 시대이니 간결체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교도 간결체가 대세입니다. 판소리에 익숙했던 그 당시 청중들에게는 만연체로 가까이 다가가, 성경 이야기를 스토리로 들려 줄 수 있었겠습니까.

이덕주: 입말과 글말의 충돌에서 이 점을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까. ‘1911년 판’ 성경이 번역되기 전에는 조선시대 언어 구조가 지식인 계층에서는 입말과 글말이 구별되었습니다. 그러다 신문화 운동이 시작되면서 입말과 글말의 일치 운동이 시작되었죠. ‘1911년 판’ 성경이 쉽게 읽혀진 것은 입말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혈의 누』라는 소설뿐 아니라, 당시 신문 기사를 보면 성경 문체가 신문 문체와 같아요.

일상용어인 입말을 글말로 사용한 것이죠. 1930년대 『개역』 작업

때는 선교사들도 한국 온 지 30년이 되었으니 한국말을 잘 알아서 조사 없이도 번역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들을 도와준 분들은 1세대와 달리 지식인 계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입말과 글말의 구별이 생기고 다시 문어체로 돌아간 것입니다. 일상 언어와 성경 언어 사이에 생긴 괴리를 없애려는 노력을 『표준』 때 했으나, 경전의 글말의 가치를 중시하는 문자주의적 입장에서 있던 보수 쪽이 거부한 것이죠.

민영진: 누가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개역』과 관련해서 ‘성경 문체’라는 말이 생겼어요. 1930년대 말의 번역 문장이 경전 문체가 되면서, 불경·시경·서경 등의 우리말 번역도 성경처럼 번역되었습니다. 증산교 경전을 『개역』 문체처럼 ‘가라사대’ 식으로 번역한 것을 보고 놀랐어요. 불교 쪽은 고어체로 할지, 현대체로 할지 의견이 나뉘는 것 같아요.

박형대: 성경 각 권마다 문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신약의 경우 어떤 것은 고전 헬라어에, 어떤 것은 코이네 헬라어에 가깝습니다. 어떤 것은 문장이 주로 길고, 어떤 것은 짧습니다. 어떤 것은 글말체에, 어떤 것은 입말체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경 각 권 원어의 특징을 살려서 번역할 수는 없을까요?

민영진: ‘옛 번역’할 때는 그와 같은 것을 생각할 여지가 없었죠. 우리말 번역자가 원문을 몰랐기 때문이죠.

김정우: ‘성경 문체’는 적절한 것 같지 않습니다. 1911년 문체가 있고, 1938년 문체가 있고, 오늘날의 문체가 있는데, 문체를 경전화하는 것은 폭력이라 하겠습니다. 문체가 시대마다, 장르마다 바뀌는데, 하나의 문체로 가져가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민영진: 세상은 급하게 바뀌는데, 수구 쪽에서는 옛날 것이 권위 있다고 하면서 젊은이와의 소통을 단절시키고 있어요. ‘성경 문체’가 따로 있지 않았어요. 신약 성경은 코이네 헬라어였고, 『70인역』도 대중 언어인 코이네 헬라어로 기록되었죠. 번역에 참여할 때 이 점을 강조하고 싶어도 현실 교회에는 이런 말이 파고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성경은 ‘가라사대’, ‘하거늘’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이덕주 교수님이 “교회가 성경 못 듣게 방해할거냐?”라며 날카롭게 지적해 주셨어요. 보수 교단의 장로님들도 “우리 아이들은 어떡하란 말이나? 성서공회야, 교회가 아이들이 성경을 못 읽게 한다.”라는 말씀을 가끔 합니다. 이런 호통을 들을 때마다 쾌감을 느꼈어요.

김정우: 1900년대를 중심으로 생각할 때, 불교가 들어온 것은 1천 4백 년도 더 됐고 유교가 건국이념으로 채택될 때는 그 시점에서 45백 년 정도 되었을 텐데, 다른 종교에서는 경전을 토착 언어로 번역할 생각을 안 하고 결국 토만 달던 시점에서 기독교에서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을 했다는 것은 분명히 세계관 측면에서 굉장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할 것 같습니다. ‘당시 어떤 세계관이 경전을 자국어로 번역하도록 했을까?’ 이것을 듣고 싶고요. 또 가톨릭이 개신교보다 오래 전에 들어왔는데, 가톨릭도 그 시점에 성경을 어느 정도 번역했는지, 안 했다면 왜 번역을 안했는지, 이것이 가톨릭 세계관에서 온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세계관과 성경 번역 사이에도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 박사님이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창락: 이 박사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전에도 불경 언해가 있었는데, 이것이 완전히 한자에 토만 단 것이었는지, 아주 우리말답게 번역된 불경 언해는 전혀 없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덕주: 이미 팔만대장경이 있었으나, 불경이 한글로 번역되는 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난 것은 세조 때였습니다. 역경원이 만들어지고, 용비어천가 수준의 한글이기는 하지만 언해본 불경이 대거 출판되었습니다. 그 시대 민중의 언어로 불경이 번역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 장안에 원각사 10층 석탑을 지은 분도 세조 임금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세조 때 불교를 보호하고 융성시키며 국가 차원에서 불경의 한글 번역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그 이후 다시 유교 중심으로 나가면서 철저하게 단절되었고, 기독교가 들어올 시점에서는 한글로 된 불경을 찾아보기 힘들었죠. 그래서 그 당시는 부처 뱃속에 들어가 있었던 ‘복장본’만 있었습니다.

문화사적으로 한글 성경이 두 군데 빛을 졌다고 봅니다. 하나는 중국 한문 성경입니다. 중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적어도 70년 앞서 성경 번역이 행해졌습니다. 특히 초창기 한국인 번역자들은 중국 『문리역』 성경에서 용어, 단어, 개념 등의 측면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적어도 ‘1911년 성경’은 중국어 성경에 큰 빛을 졌습니다. 중국어 성경과 한글 성경의 연관성은 앞으로 계속 밝혀져야 합니다.

김정우: 그 시점에 일본어 성경은 없었나요?

이덕주: 있었어요. 1880년대부터 나오는데 토를 단 성경이 대부분이었죠. 순수 히라가나 성경이 그때 나옵니다. 이수정 씨도 있었지만 성경이 중국에서 들어왔고, 일본어 성경도 큰 맥락에서는 중국어 성경의 영향을 받았죠. 『문리역』 성경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어요. 두 번째는 가톨릭입니다. 가톨릭은 개신교보다 100년 전에 들어왔지만, 원래 가톨릭은 2차 바티칸공회 전에는 성경 번역을 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라틴어 성경에 권위를 두었기 때문에 민족 방언으로 번역하는 것을 교회가 용인하지 않았을 거예요. 전례 중심이기 때문에 개신교만큼 성경에 절대 권위를 두지 않았죠. 반면 개신교 선교사들은 말 그대로

“솔라 스크립트라, Sola Scriptura”, 성경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성경을 번역했죠.

김정우: 쪽 복음 형태로라도 없었나요?

이덕주: 없었어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있는 『사사성경』이란 것이 1910년대에 나오고, 신약 성경 전체 번역은 1940년 원산에서 나오죠. 가톨릭은 『공동번역』 때부터 성경을 번역한 것입니다. 자체 번역은 교황청에서 허락을 안 했을 것 같아요.

민영진: 『공동번역』이 나오기 전까지 가톨릭에서는 선종완 신부가 번역한 구약을 썼고, 아가와 시편은 최민순 신부가 번역한 것을 공식적으로 썼습니다. 그것이 교회 예식에도 나옵니다. 『공동번역』이 나왔을 때도 시편과 아가는 그동안 익숙해 있었던 최민순 역을 계속 썼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중반에 가톨릭 주교회의에서 17년 걸려 만든 가톨릭 『성경』을 쓰기로 한 거죠.

이덕주: 가톨릭 성서 번역 역사가 ‘1911년 성경’에 직접 기여한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개신교가 가톨릭의 성서 번역을 촉구한 부분이 있죠. 그러나 가톨릭에게 빚을 졌다는 말은, 가톨릭이 100년 동안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면서 기독교가 형성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놓았다는 말입니다. 유교가 지배하던 사회에 양반과 상놈, 남자와 여자 사이의 평등 개념을 소개하여, 봉건적 사회 질서와 배치되는 근대적 수평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서양 종교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극복시켰습니다. 서양에서 들어온 종교는 사학으로 공격적, 파괴적인 위험한 종교로 막연하게 이해되었는데, 천주 교회가 민중을 계층화하면서 새로운 가치관이 확립되고 조선 후기 사회 변혁이 이루어진 거죠. 언더우드나 아펜젤러는 피 흘리지 않고 환영받으며 선교할 수 있었습니

다. 또한 프랑스 신부들이 만들어놓은 사전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리델 신부의 『한불자전』이 1880년에 요코하마에서 나오거든요. 프랑스 신부들이 만들어놓은 『한불자전』 어휘 사전으로 개신교 선교사들은 한글을 깨우쳤습니다. 언더우드는 이를 『한영자전』으로 바꾸죠. 중국어 성서에서 성서의 내용을 가져왔다고 한다면, 신학 용어의 한글화는 『한불자전』을 통해서 이뤄어졌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게일도 『한불자전』을 언급합니다. 이 점에서 가톨릭에게 빛을 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영진: 개신교가 그런 거 알아야 돼요.

김정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무엘서는 1898년에 구약 초기 버전으로 선택되었어요. 아펜젤러가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새로운 왕 다윗과 고종을 연결하면서 조선 왕조에 새로운 희망을 주려했거든요.

『성경전서』(1911년)의 문화사적 의의

민영진: 지금까지는 우리말 성경 번역 역사에 대해 주로 다루었는데, 이제 ‘1911년 판’의 문화사적 의의에 대해 좀 더 얘기했으면 합니다. 소기천 교수님이 이번에 좋은 글도 써주셨는데, 신약 중심으로 『구역』인 ‘1911년 판’의 문화사적 의의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기천: 『성경전서』가 발간되기 전 19세기 말에 중국에서 로스 역 『예수성교전서』가 발간되었는데, 이는 아무래도 평안도 사투리, 서북방언 등으로 번역이 되었기에 그 당시 한국인들이 전체적으로 공감하기에는 언어적으로 제한이 있었어요. 반면 1911년 발간된 『성경전서』는 그 당시 한국인들이 널리 사용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되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소개되는 시점에 한국인들이 기독교 경전에 대해 쉽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번역된 내용을 살펴보면 그 당시 문화적 배경 속에서 번역되었기에 당시 문화의 잣대나 정감을 확인할 수 있게 되죠. 당시는 1차 산업 중심이었기 때문에 농경 문화의 특징이 많았는데, ‘1911년 성경’도 그런 농경 문화적 배경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당시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합니다. 경전이지만 색다른 언어로 번역하지 않고 문화적 친밀감을 가지고 접근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한국인의 공감대를 확보하고 사랑받는 성경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한국 사회가 지니고 있는 혈연적, 지연적 측면과 동떨어지지 않게 번역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1911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공감대가 쉽게 확산될 수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김창락: 성서공회 기록이나 자료로 몇 부를 출판했는지 확인해야 하겠지만, 짐작컨대 1938년에 『개역』이 나온 후, 교인들이 ‘1911년 판’을 제쳐놓고 새로 나온 번역을 쓰지 않았다고 봅니다. 제 경험으로는 모친과 선친이 해방 이후까지도 ‘1911년 판’을 계속 사용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제가 잘 때 들으면서 외운 시편 23편이나 주기도문은 ‘1911년 판’이었어요. 『개역』은 1938년 출판되면서 많이 보급된 것이 아니고 1956년 『개역』이 나오면서 많이 보급되기 시작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역』이 한글 맞춤법에 맞으니까, 그리고 한글 세대들이 태어났으니까 『개역』이 주도권을 잡았지, 그 전까지는 ‘옛 번역’이 계속 주도권을 잡고 있었다고 봅니다.

민영진: 출판 부수 측면에서가 아니라, ‘옛 번역’과 『개역』 성경 사이의 논쟁점과 같은 것을 보면, 그리고 장로교가 『개역』 성경을 받아들인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겠는데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덕주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덕주: 1938년도 『개역』이 나오자마자 『표준』이 나올 때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보수의 핵심이셨던 최정민 목사님이 “개역 성경 이걸 나와서는 안 될 성경이 나왔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마치 길선주 목사님이 『아빙돈 성경주석』을 이단서라고 했던 것과 똑같은 뉘앙스예요. 그래서 당황했던 성서공회에서는 “구역도 계속 찍어냅니다.”라고 했었죠.

민영진: 『구역』을 언제까지 찍어냈는지 아세요? 1967년까지 찍어냈어요. 우리나라 어느 한 교단이 그것만 찾았거든요.

이덕주: 그런데 6·25전쟁 때 이명진 총무님이 『개역』 지형만 가지고 부산에 가셨기 때문에 더는 ‘옛 번역’을 찍지 못하고 『개역』만 찍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성서공회가 지원한 것도 『개역』이 되었죠. 6·25전쟁이 아니었다면 아마 『개역』도 『표준』 운명이 되었을 겁니다.

민영진: 1938년에 『개역』이 나왔지만, 그전까지 나왔던 성경을 살펴보면 ‘옛 번역’인데도 창세기, 출애굽기는 개역! 좀 더 늦게 나온 것은 레위기, 민수기까지 개역! 이런 식으로 판을 거듭할 때마다 추가로 개정되면서 1938년에 『개역』이 나오게 되죠.

『성경전서』(1911년)의 번역 특징

김정우: ‘1911년 판’이 문체는 아름다웠다는데, 정확성은 어떠했는지, 원어를 제대로 아는 학자들이 정말 그 팀에 있었는지, 알았으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알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창락: 구체적 예보다는 번역 원칙이 올바른 것이었는지, 번역 원

칙이 바로서지 않아 잘못 번역한 것은 없는지 검토해 보았어요. 우선 장점으로, 수동태 문장을 가급적 능동태 문장으로 번역한 것과 수동태 문장을 우리말답게 번역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원받는다’나 ‘구원 얻는다’고 하지 ‘구원된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기도문을 번역할 때 ‘며, 며, 며-고, 고’의 이중 구조를 살린 것은 매우 큰 공헌이라고 봅니다. 또한 둘째 문장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고’로 번역한 것은 굉장히 잘한 번역입니다. 『개역』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고”로 번역했는데 이것은 내용상으로 중대한 오역입니다. 주기도문에서 모든 행위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인데 ‘거룩히 여김을 받다’라는 수동태 동사의 능동태 ‘거룩히 여기다’는 동사의 행위 주체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종말적 구원 행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이루실 일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오역이 한국 교회에서 70년 이상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사용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계일성경』, 『공동번역』이나 『표준』 등 그 이후에 나온 모든 번역본들을 대조해보았는데, ‘옛 번역’에서 문법의 원칙상 잘못된 것이 시정되지 않고 고스란히 계승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아직 번역 원칙이 확립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분사 구문에서, 현재 분사나 부정 과거 분사냐에 따라 번역이 달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찬송을 부르면서 깃세마네 동산에 갔다’고 하려면 현재형 분사를 사용해야 하고, ‘찬송을 부르고 깃세마네 동산에 갔다’고 하려면 부정 과거 분사를 써야 하는데, 이러한 종류의 분사 번역에서 ‘1911년 판’에 잘못된 것은 그 뒤에 나온 번역본에서도 그대로 똑같이 틀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번역 원칙이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있다’와 ‘있어 있다’의 의미가 다르고 ‘잠을 깨다’와 ‘깨어 있다’의 의미가 다르듯,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나,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냐에 따라 의미가 다른데, ‘1911년 판’에서는 이 개념이 확실하

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잘못된 번역이 이 후에 나온 번역에도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번역의 완성도를 높이려면 번역 원리상 문제가 되는 점에 어떤 합의를 도출하는 학문적 작업을 선행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생각해요.

민영진: 이제 구약의 번역 특징을 살펴보면, 우리말은 대명사를 잘 안 쓰니까, 대명사가 실명사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원문에서는 “그가 여호와를 믿은 지라, 그가 이것을 의로 여기시고”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실명사를 넣어 앞에 ‘그’는 아브라함으로, 뒤의 ‘그’는 여호와로 번역한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대명사를 실명사로 바꾸어 번역한 것은 아주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존대법은 소기천 교수님이 쓰신 지난번 글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당신, 너, 그대’ 등의 처리가 어려워 “테오빌로 각하여, 네가”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높은 분에게 직함, 주님이나 주인을 사용하는 것을 볼 때, 구약이 좀 더 다듬어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남편을 일컬어서 ‘그’라고 하지 않고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도 문화적으로 저희 장모 세대까지도 여인들이 자기의 남편을 늘 ‘주인’이라고 불렀더군요.

또한 ‘1911년 판’에서 히브리어 본문을 과감하게 생략한 것, 잉여 표현을 다 생략한 것도 큰 특징입니다. 앞으로 번역학에서 진지하게 고려해 볼만합니다. 현대 번역 이론도 이런 것들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미 ‘1911년 판’에서도 잉여 표현이 절제되었어요. 예를 들어, 창세기 39장 14절을 원문으로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집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일러 가라대”인데, ‘그들에게 일러’를 빼버렸어요. ‘일러’와 ‘가라대’에서 하나만 번역하여, “집사람을 불러 가라대”로 번역한 것이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게 『개역』 때 살아납니다. 『개역』 때는 원문에 있는 것을 다 반영시키려고 했고, “1911년 판’에서는 불필요한 잉여 표현을 없애 버린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원문에 없는 우리말을 첨가했어요. 하박국서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의 히브리어 원문에 ‘오직’이란 말이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말 콘코던스를 보니까 ‘오직’에 해당되는 헬라어와 히브리어 대응어가 없어요. ‘오직’의 상당수가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번역자가 첨가했어요. ‘반드시’라는 말도 의미를 강조하기 번역자가 첨가한 거예요. 그래서 과연 외국인 선교사들과 우리말 학자들이 이처럼 과감하게 단어를 첨가할 수 있을까 연구해 봤어요.

‘오직’의 경우는 중국어 성경에서 왔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반드시’는 중국어 번역의 유니온 버전에 있어요. 이 유니온 버전은 1930년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환진 교수는 유니온 버전은 새로운 버전이 아니고 1800년대에 나온 중국의 여러 번역을 토대로 만든 번역이기 때문에, ‘구역이 번역될 때 우리 측 번역자들은 문리역만이 아니라, 중국어 번역사에 있는 여러 번역서들도 함께 볼 수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히브리어 본문을 이탈하는 것’이 지금도 의문스러워요. 보디발의 이야기를 다시 볼 때, 원문에 “자기 남편이 우리들을 희롱하려고 히브리 사람을 우리 집에 데려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1911년 판’에서는 히브리어 원문을 이탈하여 ‘나를 희롱하려고’로 번역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헤브라이즘, 히브리 이디엄 표현 등을 억지로 반영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이미 중국어 성경에서 한번 의미 번역했고, 우리 역자들은 그것을 그대로 가져와서인지, 어색한 헤브라이즘 같은 표현들은 많이 없어요. 예로, 창세기 22장 17절의 히브리어 ‘자르아카’를 ‘네 씨’로 번역하지 않고 ‘네 즈손’이라고 번역한 것, ‘샤아르’를 ‘문(門)’이라고 하지 않고 ‘성(城)’이라고 번역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김창락: 첨가 부분에는 ‘-하지 않고’를 ‘-하지 않고, 다만’으로 번역하는 게 있어요. ‘옛 번역’도 그렇고 『개역』에서도 꼭 그렇게 반영되어

있어요.

소기천: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는 단어 중에 ‘대개’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김창락: 그것은 ‘가르’인데, 번역할 때 생각하면 오히려 나옴데 ‘대개’나 ‘대저’로 첨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기천: ‘가르’ 뿐만 아니라, ‘호티’도 그렇죠. 원래 이 말은 헬라이어에서 ‘왜냐하면’이란 뜻의 접속사나 명사절을 이끄는 문장에서 사용된 단어들이었지요.

민영진: ‘대개’가 『개역』으로 오면서 거의 99% 걸러진다고 볼 수 있어요. 주기도문의 것도 걸러내려고 했는데 그걸 빼니까 교인들이 암송할 때 운율이 맞지 않아서 놔두었습니다.

제가 구약 번역의 특징 중 마지막으로 지적할 것은 난해한 구절들에서는 주석이 반영되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소스(source) 텍스트가 무엇이었는지 봤을 때, 많은 경우 ASV를 따라 주석이 반영되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번역을 반영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성경의 소스 텍스트가 무엇이었는지 아직 확답을 못 내렸어요.

노아의 방주에 낸 것이 ‘창’인가? ‘지붕’인가? 우리의 ‘옛 번역’은 ‘창’으로 했어요. 또 저희가 “동방으로 옮겨 가다가” 인지, “동방에서 옮겨 오다가” 인지에 대해서도 ‘동방으로 가다가’로 번역했어요. 야곱과 관련해서도 ‘층계’가 아니라 ‘사다리’로 번역한 것을 볼 때, 주석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김창락: 『구약』부터 ‘여호와’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킹제임스 번역은 ‘여호와’를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ASV에서 처음으로 ‘여호

와’를 썼습니다. 아마 그 영향으로 ‘옛 번역’과 『개역』에 그대로 ‘여호와’가 들어갔을 거 같아요.

민영진: ‘여호와’는 시종일관 못 건드리는 것이 되었죠. 지금까지도!

소기천: 제가 신약 번역의 특징을 첨가하겠습니다. 시편을 보면 찬양시들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데, ‘1911년 성경’을 직역하다 보니 ‘할렐루야’가 다 빠졌어요. 놀라운 것은 ‘할렐루야’가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다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다수 나온다는 점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요한계시록 기자가 뭔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열정을 하늘의 언어, 히브리어로 표현하고 싶은 특징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약이지만 구약 히브리어를 여과 없이 사용하여 마지막 때가 왔을 때 성도의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찬양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하는 번역 특징을 말씀드려 봤구요.

‘1911년 번역’이 기존 경전의 근엄한 의미를 벗고 서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감으로써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성경을 어떻게 이정표로 삼을 수 있겠는가에 대한 신학적인 문제에 답을 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신학적으로 제일 중요한 내용이 삼위일체 교리인데, ‘1911년 번역’은 이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대한성서공회의 권서인으로서 ‘1911년 성경’을 20년간 반포하는 일을 하셨는데,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우시고 사경회를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소소한 장로님의 성경을 보면 여백에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용어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버지’로 표현하고, 성자 예수님을 단순히 ‘목수의 아달’이 아닌 ‘하나님의 아달’로 표기하여 예수님의 정체성을 기독교론적으로 잘 표현한 것이 특징이고, 성령에 대해서는 ‘성신’, ‘아버지의 성신’으로 표현하여 하나님의 신임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이처럼 ‘1911년 판’은 초기 교인들에게 삼위일체와 같은 신학적

교리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했어요.

김창락: ‘옛 번역’에는 ‘성신’으로 나오고 『개역』에는 ‘영’으로 나오나요?

민영진: 이것은 번역의 문제가 아니라 원문 문제가 아닐까요?

소기천: 원문은 ‘프뉴마’, 혹은 ‘프뉴마 하기오스’로 나오죠. 영 혹은 성령, 신 혹은 성신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신이라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데오스’라는 신의 표현이 있지만 ‘프뉴마’를 신이라고 표현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0절의 ‘여러 신 분별함’, 에베소서 2장 2절의 ‘지금 일하는 신’이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반 신과 구분하기 위해서 거기에 ‘성’자를 붙인 거죠. 성신!

박형대: ‘1911년 판’에서는 ‘프뉴마’를 성신, 귀신이라고 ‘신’으로 번역해서 썼는데, 지금 성경을 보면 귀신은 여전히 귀신으로 번역하고 성신은 성령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번역의 역사 가운데서 생기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아까 민 박사님께서 구약의 특징 중에 ‘주’ 또는 ‘주인’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영어 성경에서 구약의 여호와를 LORD, ‘주’로 번역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말 첨가의 문제인데, 예를 하나 들어보면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두 아들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거길 보면 원문의 ‘주’를 ‘아버지’로 번역했어요. 어떤 영역본이나 사본도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 이렇게 번역한 것은, 우리가 아버지를 ‘주’라고 부르지 않기 때문에 ‘주’를 ‘아버지’라고 바꾼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911년 판’을 보면 믿자들이 순종했다고 되어 있는데 『개역』

으로 넘어오면서 둘째 아들이 순종한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헬라어 비평 원문이 26판부터 맏아들이 순종한 것으로 바뀌었기에 앞으로 번역을 하게 되면 다시 맏아들 순종으로 가야하는데, 이는 번역상의 차이가 아니고 우리가 택한 사본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도 분석해 내고 어떻게 이것을 일관성 있게 반영할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김창락: 이것은 본문 비평학의 문제인데, 내용이 변하는 이유는 교리에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이 비유를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해서 큰 아들은 유대 민족을, 작은 아들은 이방인들을 대표한다고 보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 아버지의 명령을 수행한 쪽은 유대 민족이 되는 셈이니까 이방인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교 교회의 사정에 모순됩니다. 그래서 후대의 필사자들이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의 역할을 바꾸어서 필사했던 것입니다. 성서 번역은 교리적 내용과 상관없이 원래 본문을 찾아서 그대로 번역하는 것이 원칙이니까 그리스어 신약 성서의 비평본의 본문대로 번역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민영진: 앞으로 번역을 할 때, 원문의 이문들(textual variants)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는 한 번쯤 나올 겁니다.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어떤 공헌을 이룰 것인가’ 말하기 전에 이덕주 교수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아까 가톨릭의 영향을 말씀해 주셨는데, 성경 직해에 관해서 더 해주실 말씀이 있습니까?

이덕주: 그 부분은 정길남 교수의 논문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톨릭의 성경 직해라는 것은 읽을 성경 본문들을 절기에 맞춰서 텍스트를 발췌 번역한 것으로, 풀 텍스트가 아닙니다. 이것을 구약 가톨릭 성경 번역의 효시로 보긴 하지만 개신교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전문을 번역하는 게 목적이고, 그들은 전례에 필요한 발췌 번역인 것입니다.

정길남 교수도 그렇고, 그쪽 국문학 하신 분도 그렇고, 그 번역이 결국 1900년도 성경의 개념이나 표현에 영향을 주었다고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민영진: 이덕주 교수님께서 중국에서의 한문 번역이 우리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후학들에게 과제를 주어서 좀 더 연구를 해봤습니다. 감신대학원을 졸업한 학생으로 우리 말과 일본말을 잘하는 김좌대라는 제일교포 3세에게 메이지 번역이 『개역』에 끼친 영향을 과제로 내 주었는데, 아주 좋은 시도였어요. 『개역』의 많은 어휘가 일본어 성경에서 온 것을 발견했어요. ‘1911년 번역’은 일본역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았는데, 『개역』에는 명치역의 영향이 크고, 일본 용어가 그대로 사용되기도 했어요. 베일을 ‘면박’이라고 한 것이 그렇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번역과 성서 연구를 위한 제안에 초점을 맞춰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듣고만 계셨던 김정우 교수님께서 이제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번역과 성서 연구를 위한 제안

김정우: 저는 ‘옛 번역, 1911년 번역’은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민족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어, 얼, 역사와 문화를 말할 당하던 때에 우리 민족의 정절을 지켜갈 터와 해방 이후의 복음화의 터를 ‘옛 번역’이 준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이는 태도와 그 시점에 성경을 받아들이는 태도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때는 경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받아들였을 것이기에 정신적, 종교적, 문화적 충격이 크고 신선했을 것입니다. 성경과 우리 문화가 한글을 통해 완벽한 융합을 했다는 점에서, 한국 교회가

나아갈 새로운 역사적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많이 고민했어요. 대한성서공회와 여러 신학교들이 원문 연구를 체계적으로 강화시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제는 학자들이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에 번역이 옛날처럼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권위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한 번역에 대한 논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이고 기존 번역이 오역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도 훨씬 커질 것이므로, 성경 번역을 100년 동안 지켜온 대한성서공회가 원문 연구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심화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그걸 위해서는 독일 뮌스터, 나이다, 스위스 바르셀로믹과 같이 사본 연구를 하는 기관과 자매 관계를 맺어서 원문 연구 데이터베이스를 완벽하게 구축하고, 그것을 토대로 우리말 성경이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원문 연구 작업과, 원문 연구에 대한 국제적 네트워크 강화가 21세기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개역』과 그 이전의 성경이 얼마나 원문에 근거했는가 하는 것이 아직도 논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는 원문 연구소가 강화될 때 제대로 평가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말 번역시 원문의 숙어 처리가 매우 미숙한데, 원문 연구가 심층적으로 이뤄지면 숙어 번역도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0주년을 맞으면서 ‘옛 번역’에 대해 관심이 증가되고 있지만, 실제적인 접근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디지털 시대인데 아주 아날로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선택된 소수만이 ‘옛 번역’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디지털 환경에 맞게 ‘옛 번역’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1911년 판’ 뿐 아니라, 이전의 『게일역』, 『로스역』, 여러 활요와 같은 모든 성경 텍스트를 디지털화해주면, 옛 말들에 대한 연구가 확실히 될 것입니다. 디지털화 작업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 아시아 성서 데이터베이스도 누군가가 구축하고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1911년 판’을 바꿀 때, 문리

역, 명치역, 가톨릭 등 여러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을 검토하려면 이 성경이 번역될 때 아시아에 어떤 성경이 있었는지 알아야 하고, 장절 별 평가가 가능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제적 네트워크를 갖춘 성서 공회가 아시아 성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 우리말 성경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가능하고, 더 나아가 아시아 성서 이해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결과 다음 시대 아시아 성경은 더 성숙한 버전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1911년 판’이 식자층만 보던 성경을 서민들에게까지 보급되도록 한 것을 통해, 오늘날 성경 독자층에서 소외 계층은 누구인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 결과 장애인을 위한 성경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성서공회가 깊어져야 할 책임이 참 크다고 여겨집니다. 모든 종교가 정치뿐 아니라 인터넷과 디지털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새로운 매체 환경 속에서 성경이 어떻게 새롭게 가공되고 사용될 것인지, 특히 트위터 환경 속에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친숙하게 알릴 수 있는 전략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민영진: 오늘 모임에서 가장 큰 고기 한 마리 낚은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번역할 때 유의할 것으로 박형대 교수님은 원문의 이문에 대해, 김창락 교수님은 오역에 관해 지적하셨는데, 새로운 번역에 앞서 해주실 말씀이 더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락: 더 보탬 말은 없고, ‘옛 번역’에서 진짜 장점을 모르고 놓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번역 원칙이 확립되지 않아서 생기는 과오를 피하기 위해, 다음 세대 번역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합의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면 좋겠어요.

민영진: 새로운 개정위원회나 번역위원들이 구성된다면 두 분이

제안한 것은 전달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만 말씀하셨지만, 김창락 교수님 제안은 중요한 것이고 개정위원회와 번역위원회는 1-2년 걸려도 지금의 제안들을 반영하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형대: 사본학적 고려와 함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개역』 번역에 대해 말씀하실 때, 번역에 참가하신 분들이 식자층이 되면서 아름다운 문체가 사그라졌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공부를 많이 할수록 기도할 시간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거 같아요. 전에는 학자들의 모임에서도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시간에 쫓기다보니 많은 논쟁과 합의로 모임이 채워지게 되는 것 같아요. 다음에 번역을 하게 될 때에는 충분한 토의를 하면서도 동시에 번역에 참여하는 분들이 예배자로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공동체를 이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럴 때, 마음이 통하는 번역이 이루어질 것이고, 교회에 사용될 때에도 읽으면 더 감동이 되는 번역 성경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정우: 한 가지 더 말씀 드리자면, ‘1911년 판’의 역사적 의의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초 교파적인 성경’이었습니다. 여러 교단에서 힘을 합해 오랫동안 준비해서 한국 교회 성경으로 받아들여졌고, 그것이 지금 100년 전통을 이루어 왔으므로 이 정신을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펜젤러가 번역하러가다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번역자와 한국 교회 전체가 가슴 아파했는데, 이처럼 번역자와 교회가 하나가 된 가운데서 새로운 성경이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정신을 한국 교회가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민영진: 아마 그 전통은 계속 이어 나갈 겁니다. 1967년 이후 번역도 전 교단이 참여했어요. 문은 항상 열려 있었어요. 대한성서공회에서는 그 정신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모든 교단이 하나가 되기까지는

성경 번역 외의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이제 우리 교회의 성숙과 함께 극복되리라 봅니다. 전 세계 성서공회는 일치된 정신으로 범위를 동방 교회까지, 가톨릭까지 끌어안고 가려고 합니다. 번역은 같이 하고 용어만 교단 것을 쓰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김정우 교수님께서, ‘성경이 1911년에 나왔을 때 소외된 이들까지 끌어안았다’라고 보신 것은 새로운 관찰이었습니다. 오늘의 성경 번역이 모든 사람 즉, 어린이나 장애인이나 미디어를 달리하는 이들까지도 포용하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소외된 이가 없는 성서 번역’이라는 목표가 설정되네요. 신세대들이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으니, 이런 문제도 얘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좌담회가 성서공회로 전달되면 성서공회 쪽에서도 긍정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봅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작업은 기관이 해야지, 개인이 하기 어렵습니다. 이만열 교수팀이 쓴 『대한성서공회역사』 제2권 뒷 부분에 보면, 지금까지 성서공회에서 나온 자료들 목록이 나오는데, 이것 모두 텍스트 파일로 되어 있으면, 성경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아시아만이라도 DB를 구축하자고 하셨는데,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제안입니다. 원문 연구 편집위원이신 김정우 교수께서도 국제적으로 알리시고 UBS 쪽에서 대만과 일본에 알리면, DB 구축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못한 것에 책임을 느끼면서도 대단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덕주: 제가 논문을 쓰면서 처음으로 ‘제1세대 성경’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저는 기독교 120년을 세대별로 구별해서 보고 있거든요. 성서 번역은 그 시대정신과 신학을 반영한다고 봅니다. 우리의 대화가 미래의 성서 번역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때, 성서 번역에 시대정신은 무엇을 반영할 것이고 어떤 신학적인 배경을 가질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한국 기독교는 3세대에서 4세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다고 봅니다.

1890년대에 개종하신 분들이 1세대인데 이분들은 거의 삼사십 대에 개종하였기 때문에 토착 종교가 몸에 밴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만들어 낸 성경이 ‘1911년 판 성경’이고 그래서 제1세대 성경이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이분들에게 기독교 신학은 서양에서 배운 신학이 아니라 이미 몸에 밴 신앙과 문화적 에토스에서 기독교를 해석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번역한 성경에는 토착화된 신앙이 깊게 반영될 수밖에 없어요. ‘1911년 성경’이 문화사적으로나 문체적으로 순수하고 아름답게 번역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1세대 신앙인들이 가진 장점 때문에 가능했어요. 이분들은 기독교 교리에서 자유로운 분들이에요. 신학적 선입견과 편견이 없이, 교리에 포로가 되지 않고, 충격적으로 받은 처음 스피릿인 거죠. 어떤 면에서는 원문으로부터도 자유로운 분들이에요. 말 그대로 스피릿을 가지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작품이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2-3세대는 신학, 교리, 원문의 포로가 됩니다. 처음 한국에 온 선교사들도 신학의 포로가 아니었어요.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와서 토착 번역자들에게 재량권을 주었던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한국어를 몰랐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1890년에서 1910년대 출생한 2세대 분들은 1세대와는 달라요. 이들은 적어도 주일학교나 청소년기에 기독교를 접하게 됩니다. 이분들은 오리엔테이션 된 상태에서 미국이든, 일본이든 서구 신학을 배워온 것이죠. 이분들로부터 ‘신학적 사대주의’가 생기게 됩니다. 그분들이 만들어 낸 게 『개역』이에요. 그 속에 주체성이 많이 빠져 있죠.

그러다가 3세대가 되죠. 1920년에서 1940년대에 출생하신 분들로 여기 계신 분들이에요. 이 그룹은 2세보다 더 기독교적인 환경에서 자라났죠. 이분들 때에 기독교는 주류가 되었죠. 2세대보다 더 깊이 성서 원어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분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새번역』과 『공동번역』이라고 봅니다.

이제 제4세대 성서가 나와야 하는데요. 어떤 성서가 나와야 하는가?

이것은 결국 지금의 시대 정신 및 신학적 과제와 맞물려 있다고 봅니다. 1세대 성경은 근대화와 맞물려 있어요. 봉건적 수직사회에서 근대화의 수평사회로 변화가 있었죠. 2세대는 자주독립과 민족성 문제가 배경이 되었어요. 『개역』이 한계가 있으나, 한글을 마지막까지 지켰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3세대 성경은 해방 후 세대로 전쟁, 분단 체험, 반공 체험의 배경 속에서 분단을 극복하고 화해와 일치를 도모하죠. 이런 의미에서 『공동』이 에큐메니칼의 정점이라고 봅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한국 교회 안에 있는 보수주의 뿌리와 진보주의와의 갈등, 대화의 단절 극복이 4세대의 문제라고 봅니다. 대화 단절의 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4세대 성경이 나와야 합니다.

소기천: 일제가 국권을 침탈했을 때, 그리고 삶에 절망감이 왔을 때 ‘1911년 판’ 성경이 삶에 희망을 주었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말을 가까이 하고, 우리 얼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봤습니다. 특히 봉건적 잔재 아래 있었던 여성들은 학교도 못 다니고 한글도 몰랐는데 ‘1911년 판’ 성경을 통해 한글을 깨우치다보니, 성경을 간직하고 지키고 싶은 희망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과제 앞에 서 있습니다. 특히, 교회가 분열되어 있고, 성서공회와 성경공회에서 성경이 발행되는 이 시점에서, 과연 한국인은 성경에서 희망을 찾고 있는가? 또한 문맹퇴치의 정서가 있던 시절처럼 과연 성경을 지키고 싶어 하는가? 그런 정서를 이제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 교회가 시대 정신을 반영해서 시대가 요청하는 성경 번역을 하고 반포하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분단된 상황에서 대화도 단절되고 정치적, 군사적 갈등으로 묘안을 찾기 어렵지만, 이미 많은 탈북자가 있고 상당수가 성경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갖고 있으니, 성경 번역에 대한 새로운 공감대를 우리만 가질 것이 아니라, 제한적이지만 탈북자들도 훈련시켜서 남북한이 같이 번역할 수 있는 화해나 일치의 개념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덕주: 그 점이 제가 4세대 성경을 지망하는 이유예요. 1-3세대의 구분은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라 민족적 상황의 대처 개념이거든요. 이제4세대의 민족 공동체가 가진 상황은 통일입니다. 저는 강의를 할 때 항상 한 민족 통일 후 시대를 염두에 두고 신학을 하자고 합니다. 이미 통일은 되어가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한민족 공동체의 모든 지형을 바꿔 놓을 수 있는, 그런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사건은 무엇이겠는가 생각할 때 통일밖에 없어요. 통일을 염두에 둔 신학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977년 『공동』 성경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북한 평양에서도 성경이 나왔으니까요. 결국 1977년에 제3세대가 만든 성경을 재발견 해서 가치를 계승하는 것이 제4세대 성경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공동』 성경이 무산될 수밖에 없었던 갈등 구조가 개신교가 가진 약점인 것이죠.

소기천: 제4세대 성경 번역의 방향을 통일 이후 시대에 한반도가 공감할 수 있는 성경을 만드는 것으로 잡는다면, 생각을 좀 더 넓혀서 『로스역』이 나왔던 현장에 사는 조선족을 아우르고 디아스포라 한인들도 연대케 하는, 모든 한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큰 틀의 성경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민영진: 두 분 말씀을 들으니 1980년대 말에 썼던 한 작은 글이 생각납니다. 평양 조선 그리스도 연맹에서 1984년 무렵 신, 구약을 냈을 때 그것을 개관했습니다. 당시 출판인들이 지금 이것을 출판하면 이적 행위로 인식될 것 같다고 해서 45년 후에 발표를 했어요. 그때 마지막 부분에 분단 극복과 화해를 위한 성경 번역의 한 시도가 조선 그리스도 연맹에서 낸 성경이라고 결론을 내린 적이 있었어요. 『공동』 정도의 언어 수준이면 북한 사회에서도 받아들이겠구나 생각하니 정말 반가웠어요. 그래서 앞으로 통일 시대를 대비한 성경이려면 일상 언어가 되어

야 합니다. 북한이 남한의 『공동』을 교정한 것을 보고 북한의 문화어, 대치어를 유심히 보면서 그 언어를 우리가 활용한다면, 북한과 같이 쓸 번역본도 가능하겠구나 생각됩니다.

『공동』 작업을 할 때 가톨릭 대표 둘, 개신교 하나, 성공회 한 자리를 마련하고 북한 대표 한 자리도 남겨 두었었어요. 앞으로 성경 번역 위원회가 구성된다면 비전을 분단 극복과 화해 일치의 비전을 가지고 성경 번역에 임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사족을 붙이면, “굿 네이버스(Good Neighbors)”에서 북한을 위한 발췌 성경을 만들었어요. 성서공회에서 우리말과 영어 대조 판이 나올 수 있게 도와주었고, 북한에 들어가 읽고 있어요. 그것을 번역했던 북한 분이 이것을 다시 번역하고 있는데, 이유는 조선 그리스도 연맹에서 번역한 『공동』은 인민을 위한 성경이 아니라 고급 조선말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참고가 되겠죠. 앞으로 번역위원회가 구성된다면 통일이 되든지, 안 되든지 북한 대표가 와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제 여러분들 한마디씩하고 끝냅시다.

이덕주: 김재준 선생 글을 읽었는데요. 한국 교회가 개혁된 교회를 주장하는데, 개혁하는 교회를 주장해야 하지 않나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개혁되었다고 생각해서 더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성경을 만들지 못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기만 정(正)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와 다르면 반(反)이라는 이 입장, 이런 신학적 틀, 선입견, 편견을 깨뜨려야 합니다.

소기천: 제가 ‘1911년 판’ 성경에서 배우는 것은 ‘사고방식의 전환’입니다. 한자 문화권 속에 있었던 사고를 순우리말로,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한 하이데거의 말처럼 한문이란 옷에서 우리말이란 옷으로 바뀔 때, 사고와 생각이 전환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면서 희망이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교회가 외면당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뭔가 사고방식의 전환이 이뤄져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1세대 성경에서 획기적인 사고방식의 전환을 배우고, 새로운 성경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독일에서 불신자를 목표로 한 성경을 출간했던데, 우리도 그런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민영진: 오랜 시간동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외주셔서 감사하고, 귀한 말씀 가슴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만남이 되어서 새로운 성경 번역의 역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